

◀ 여수시와 업무협약 체결후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는 심호진 회장(사진右)과 김충석 여수시장(사진左)



▲ 국동항 캠페인에 참석한 심호진회장(사진中)과 최영항 여수수협 조합장(사진右)

한국어촌어항협회, 여수시 및 여수수협과 양해각서(MOU) 체결

국동항에서 '쾌적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 캠페인 전개

한국어촌어항협회 심호진 회장은 11월 10일 여수시 및 여수수산업협동조합과 어항 및 연근해 어장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 어업인의 환경보호 및 안전예방 관련 교육·홍보 협력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안 시·군(관리청) 및 일선 수협(어항·어장 이용자단체)과 공공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어업인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과 상생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재능 및 교육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의 기반구축에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여수시 국동항 일대에서 '쾌적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이란 주제로 어항청소선과 어항 안전점검 잠수기술자를 투입하여 폐기물 수거와 어선스크류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어촌어향협회, KFE 2010 수산홍보관 운영

Green Ocean을 테마로 수산미래와 해피 씨푸드로 구분 개설

한국어촌어향협회는 11월 18~2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KOREA FOOD EXPO 2010(이하 KFE 2010)의 수산부분 주제관을 'Green Ocean'이라는 테마로 운영했다.

수산의 기술 부분과 수산식품 부분을 '수산미래'와 '해피 씨푸드(Happy Seafood)'로 각각 구분하여 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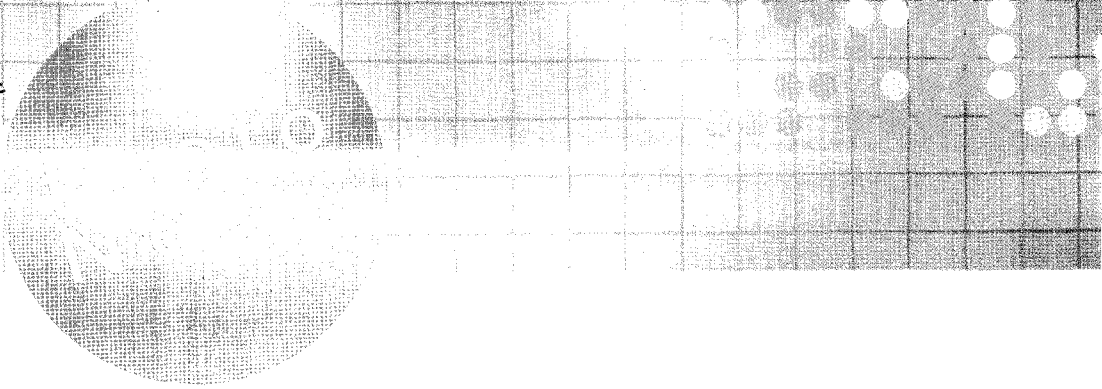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수산업과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산의 가치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산미래' 관에서는 각종 육종어류 및 관상어, 친환경 어구, 바다목장 체험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해피 씨푸드' 관에서는 어딤채, 제철수산물요리, 문화 속의 수산물, 수산물 관련 속담과 명품 수산식품 전시와 함께 시식회 및 수산물 경매 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18일에는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 어떻게 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19일에는 '제3회 여성어업인요리대회 및 수산물세계화 요리발굴대회'가 열려 한국수산물의 세계화와 수산업의 정보교류이 장을 마련하였다.



▲ 수산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는 심호진 회장

◀ 「코리아푸드엑스포 2010」 수산홍보관 부대행사로 열린 학술세미나 전경



어촌관광 도우미 '바다해설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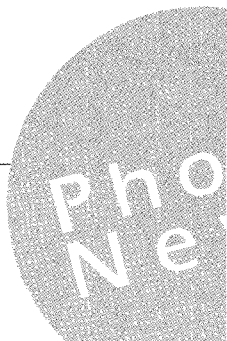
어촌관광 전문 해설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해 지난 10월 18~22일까지 충남 연기군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전체 신청자 141명에서 최종 선발된 예비 바다해설사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교육과정 중 제1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촌의 인문·자연 자원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개설된 이번 중앙 집체교육은 기본소양교육 및 해양과학, 인문, 수산업, 관광 이론 등 4박 5일 동안 폭넓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후 지역별 특화교육(2차)과 현장실습(3차) 과정을 거친 예비 바다해설사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을 부여 받게 되며, 향후 해당 어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을 돕고, 역사·문화·자연자원 등 어촌의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태어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어촌관광의 올바른 풍토를 조성하고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어촌관광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5회 우수 어촌체험마을 선정 성공사례발표회

1차 10개마을 선정, 현지 실사 후 순위 결정

대상 1억원, 최우수 6천만원, 우수 3천만원, 장려 1천5백만원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제5회 우수 어촌체험마을 선정 성공사례발표회 개최하였다.

지난 10월 19, 20 양일간 충남 연기군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한국어촌어항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 지자체 추천과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국의 10개 어촌체험마을의 운영 어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우수마을 선정은 이번 발표회에서 선정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 실사(10.25~10.29)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 내역은 대상(1억원), 최우수(6천만원), 우수(3천만원), 장려(1천5백만원) 등 총 4억원이 지급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도 수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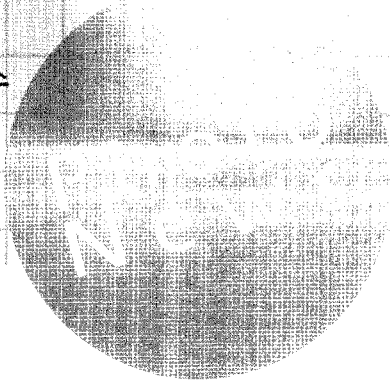
성공사례 발표회에서는 각 참가 마을 우수 운영사례 발표와 함께, 오병석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장의「어촌체험마을 발전 방안」강의와 김인겸 인구브랜드 대표의「지역 마케팅 및 브랜딩」특강도 실시되었다.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 발표회는 체험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어촌 체험마을은 전국에 10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 발표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심호진 회장

◀ 서류심사를 통과한 10개 어촌체험마을의 열띤 경연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150여명의 관계자들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지원하는 어항의 고도위생관리 대책과 노후화대책 촉구

일본 전국어항어장대회에 심호진 회장 초청·참석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는 지난 10월 28일 일본 오키나와현 컨벤션센터에서 제62회 전국어항어장대회를 개최했다.

귀빈자격으로 참석한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은 이날 오키나와현 지사, 오키나와현 의회위원장, 대일본수산회장, 전국풍요로운바다만들기추진협회 회장 그리고 각 현의 관계자 약 1,500여명이 참석한 대회장에서 어촌어항어장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양국 어촌어항어장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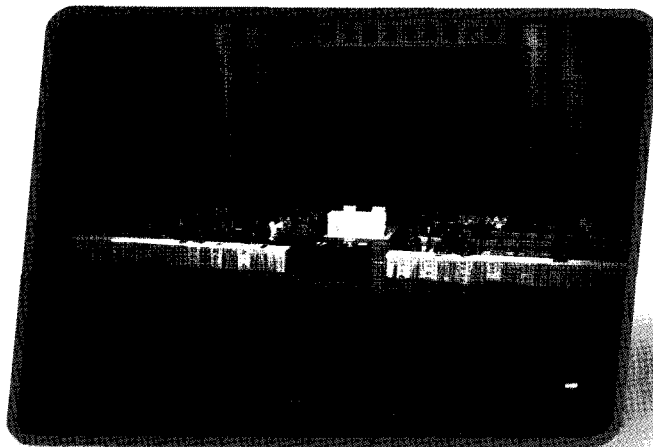
이날 대회에서 일본 어촌어항어장 관계자들은 「2011년 어항·어장·어촌·해안 정비 예산의 확보에 관한 건」을 위하여 전국 어촌어항어장 관계자들의 총의를 모으자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 ▲ 수산자원의 회복·증대와 풍요로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산환경정비
- ▲ 안전·안심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지원하는 어항의 고도위생관리 대책과 노후화 대책
- ▲ 지역자원을 이용한 어촌의 6차산업화와 생활환경정비
- ▲ 지역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어항·어촌 및 해안의 방재·감재대책 등을 세부 실천 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심호진 회장은 전국어항어장대회에 앞서 27일 오후에는 오키나와현 아와세(泡瀬)어항을 시찰하였으며, 저녁에는 수산관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대회전야 환영리셉션에 참석하여 일본 수산관계자들과 양국관심사에 대해서 환담을 나누었다.

▼ 환영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심호진 회장



◀ 오키나와현에서 개최한 제62회 전국어항어장대회에 일본 전국의 어촌어항어장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하여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지원하는 어항의 고도위생관리 대책과 노후화 대책 등 총의를 결의했다.